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송언근** · 김재일***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a Rationale for a World Geography Curriculum*

Un-Gun Song** · Jae-Il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조건을 살피는 것이다. 초등 학생들은 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해 막연한 문화적 동경을 갖거나, 때로 억견이나 편견에 의해 다른 나라들을 이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삶을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인식의 틀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 나라별 호오(好惡)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판단 근거는 장소의 상징성과 생활과 관련된 일차적 조건, 즉 기후, 음식, 주거지 등이며, 우리 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정서적 요인이 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지방)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동심원적 구성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 4학년 향토 학습에서부터 지방과 세계를 연계하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어 : 시·공간의 압축, 세계화, 지방화, 세계적 지방화(세방화), 세계화와 지방화의 상호작용, 정신적 이미지, 형상적 이미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rationale of world geography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nd to get impressionistic and distorted information about other countries through snapshot TV programs. But they need to get more balanced understanding abou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country. Children's judgment about other countries, favorable or unfavorable, tends to be emotional, based on the first-order conditions of life in those regions, such as atmosphere, food, and habitat, and the symbolics of the place. But their systematic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own life and the life of other locations or countries tends to be meager. It seems to be partly due to the practice of co-centric curricular construction. The geography curriculum may have to be in relation to other countries, from the regional geography of the third grade on.

Key words : time-space compression, globalization, localization, glocalization, global-local interplay, mental image, topological image.

1. 서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Harvey, 1996)을 가져오고, 시·공간의 압축은 직·간접적 접촉의 범위와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공간적 의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세계로의 화(化)함이다.

더 이상 세계는 국경으로, 인종과 민족으로 혹은 정치적·경제적·종교적 특징으로 분리된 각각이 아니라, 세계라는 하나의 메카니즘 속에서 움직이

고 있다. 나라와 지방, 심지어 개인조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져 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각 나라의 정보가 실 시간대에 접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름으로 구분되던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세계화라는 공동의 문화 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주도적 이론이 있으면 이에 반하는 이론이 나오듯이, '세계화(globalization)'는 '지방화(localization)'를 낳고 이는 다시 "세계적 지방화(glocalization) 또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상호작용(global-local interplay)"(최재현, 1996)이라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

* 본 연구는 2000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unsong@Taegu-e.ac.kr)

*** 사곡 초등학교 교사(Teacher, Sagock Elementary School)

은 흐름은 객체화(세계화)되는 주체(지방화)가 주체적인 객체로 바뀌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의 것이 세계의 것이라는 슬로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도시들은 세계로 문을 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토대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은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토대이자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제시하는 도구이다. 지식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교육은 지식의 흐름에 토대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대구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¹⁾으로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 연구방법은 설문지 분석이며, 설문 대상은 대구시 이현 초등학교 6-1반 43명과 노전 초등학교 6-2반 43명 등 총 86명이다. 조사 기간은 7월 3일~7월 19일까지이다.

2. 대륙별 나라에 대한 인지 특성과 인지 맥락

대륙과 나라에 대한 인지도는 세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공간적 인지 범주를 이해하는 지표이고, 이해의 정보원은 인지의 형성 맥락과 특성을 이해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대륙과 나라에 대한 인지 특성과 정보원에 따른 인지형성의 맥락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지 특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 대한 학생²⁾들의 인지의 공간적 범위는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있다. 특히 세계 지리를 학습하지 않은 6학년 1학기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 등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관계가 적은 대륙의 나라들까지 알고 있었다. 대륙과 나라별로 인지도의 편차가 있지만, 아시아 15개국, 유럽 24개국, 아프리카 11개국 등 총 60개국을 인지하고 있어, 1997년 조사시의 39개국에 비해(김재일, 1997) 세계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³⁾

표 1. 대륙별 나라에 대한 인지도⁴⁾

N=86 (중복응답 허용)

아시아	중국(62), 일본(62), 사우디아라비아(10), 인도(9), 대만(7), 아프카니스탄(6), 북한(6), 파키스탄(4), 베트남(4), 몽골(3), 부탄(2),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14개국
유럽	프랑스(45), 독일(43), 이탈리아(42), 러시아(35), 영국(31), 스페인(30), 포르투갈(25), 폴란드(25), 네덜란드(22), 터키(15), 아일랜드(12), 덴마크(12), 스위스(10), 스웨덴(10), 노르웨이(8), 그리스(6), 오스트리아(4), 헝가리(3), 크로아티아(3), 핀란드(3), 벨기에(2), 아이슬랜드,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24개국
북아메리카	미국(37), 캐나다(24)	2개국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4개국
남아메리카	브라질(34), 아르헨티나(15), 칠레(10), 페루	4개국
아프리카	세네갈(24), 이집트(11), 남아프리카공화국(10), 카메룬(5), 가나(4), 리비아(4), 나이지리아(3), 가봉(2), 소말리아, 모로코	10개국
오세아니아	호주(7), 뉴질랜드(5)	2개국
기타	미국(26), 터키(21), 러시아(19), 멕시코(19), 세네갈(17), 브라질(12), 아프카니스탄(10), 사우디아라비아(9), 스페인(7), 남아공(7), 캐나다(7), 네덜란드(7), 포르투갈(6), 중국(5), 아르헨티나(5), 독일(5), 나이지리아(4), 폴란드(4), 이탈리아(3), 이집트(3), 스웨덴(2), 아일랜드(3), 잉글랜드(3), 우루과이(3), 싱가포르(2), 프랑스(3), 일본(2), 카메룬(2), 파키스탄(2), 카자흐스탄(2), 벨기에(2), 리비아(2), 파라과이(2), 뉴질랜드(2), 튀니지(2), 칠레(2), 인도, 덴마크,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영국, 호주, 스위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대만, 피지,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팝, 크로아티아, 파라과이, 북한, 싱가포르, 에콰도르, 카메룬,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59개국

학생들의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인지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륙별 인지의 차이로 유럽이 다른 대륙에 비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나라, 60개국 중 40%가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나라별 인지도의 순서인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브라질,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캐나다, 세네갈, 네덜란드 등 상위 인지도 나라의 60%가 유럽 나라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둘째, 같은 대륙이라도 나라간의 인지도에 큰 차이가 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인지도는 전체 응답 학생의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등은 단 1명만이 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대륙과 나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륙과 나라의 위치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나라 수가 60개인데 비해, 대륙과 나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59개나 되었다. 이는 나라 이름은 알되 그 나라들이 어느 대륙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와 거의 같은 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지들의 특징은 후술할 정보원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대륙과 나라의 관계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네 번째 특징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하나는 대륙별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위치에 대한 오개념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와 터키, 카자흐스탄을 아시아 대륙에 포함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초등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학년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위치와 관련된 오개념 중 하나이다. 유사한 경우로 아프리카에 인접한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사우디아라비아, 아프카니스탄 등)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경우 같은 대륙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오개념이다. 예를 들어 백인들로 구성된 나라는 유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유럽 나라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실제 그렇게 대답한 학생이 24명으로 전체의 27%에 이르고 있다.

2) 인지의 구성 맥락

전술한 세계 각 대륙과 나라에 대한 인지의 특징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메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용이해진 정보의 획득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노출 양과 질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공간과 시간을 압축하게 되고, TV를 통해 실시간대로 소개되는 세계 각 나라의 사정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정보의 폭주는 “축소되는 세계(shrinking world)”(최재현, 1996, 재인용)를 낳고, 축소된 세계의 총아인 메스미디어는 각종 정보 속에 초등학생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같은 환경적 변화는 쏟아지는 각 나라의 정보를 분류, 분석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요인이

표 2. 대륙과 나라의 위치적 관계가 잘못된 나라들

아시아	러시아(17), 터키(12), 미국(2), 카자흐스탄(2), 벨기에, 독일, 우루과이	7개국
유럽	미국(17), 세네갈(4), 아르헨티나(4), 튀니지(2), 중국(2), 남아공(2), 브라질(2),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카메룬, 싱가포르, 아프카니스탄	18개국
아메리카	세네갈(7), 네덜란드(2), 남아공(2), 나이지리아(2), 폴란드, 러시아, 아프카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8개국
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3), 사우디아라비아(3), 브라질(2), 칠레(2), 스리랑카, 파키스탄, 포르투갈, 북한	8개국
오세아니아	네덜란드, 아프카니스탄, 세네갈, 리비아, 벨기에	5개국

되고 있다.

이 같은 유추는 표 3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6학년이 각 나라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원의 약 78%는 TV이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각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지리적 특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TV를 통한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표1과 2의 특징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정보의 획득원

순서	정 보 원	수(명)
1	KBS 2TV 도전 지구 탐험대	33
2	월드컵 경기	29
3	서적	9
4	선생님 이야기	5
5	컴퓨터	4
6	TV 뉴스	2
7	MBC TV 세계의 오지	1
8	KBS 2TV 풍물 기행 세계를 가다	1
9	KBS 2TV 오지의 사람들	1
10	지구본 학습	1

먼저 대륙별 인지도의 특징을 보면, 가장 많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의 경우 무엇보다 최근에 끝난 2002 월드컵이 인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월드컵 본선에 가장 많은 나라를 출전시킨 대륙이 유럽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체 출전국의 약 50%를 차지하는 15개 나라가 유럽 나라들이다. 한달 동안 TV를 통해 방영된 월드컵 경기에서 적어도 경기 동안에는 경기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수없이 듣게 된다. 이 같은 반복적 언급이 그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나라들 모두가 본선 진출국, 그것도 소위 축구 강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유추는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정보 획득원 중 '월드컵 경기'가 33.8%를 차지하여 '도전 지구 탐험대'의 38.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유럽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킨 또 다른 요인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다. 이 같은 추정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피자와 피사의 사탑, 로마, 네덜란드의 풍차와 튜립 등 널리 알려진 세계적 문화와 문화재에 초등학생들이 일찍부터 노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동경이 특정 나라와 대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보의 노출 양과 질의 차이로 같은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인지도의 차이가 난다. 인지도가 높은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위 선진국들로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는 나라들이다.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 특징으로 볼 때, 후진국 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수출국들인 선진국들과 관련된 정보가 후진국보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자주 메스컴에 등장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 인해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 역시 후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환경이 이들 나라들과 관련된 소식이 후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각 나라를 인지하되, 편중해서 이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오지의 탐험', '오지의 사람들' 과 같은 TV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이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비 유럽 나라 중 중국과 일본이 1, 2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들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브라질과 세네갈이 유럽의 나라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는 것은 월드컵 경기가 끝난지 며칠밖에 안되는 시간적 관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유추는 전술했듯이 월드컵 방송이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각 나라들의 정보 확산의 양과 질적 차이는 같은 월드컵 진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 대해 아는 학생이 3명과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3. 세계 각 나라에 대한 호오(好惡)의 특성과 맥락

오감을 통해 지각한 정보를 인지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따라서 나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인지 과정을 통해 정보를 분류, 분석한다는 것 역시 주관적이다. 이 같은 주관적 인지가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보원과 정보에 따른 인지의 중요성과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들이 세계 각 나라에 대해 느끼는 인지가 어떤 정보원을 통해 어떤 맥락으로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나라별 호오의 특성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미국이고 2위는 프랑스이다.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순이다. 전체 학생의 약 70%가 미국, 프랑스, 중국 세 나라를 동경하고 있다. 가장 가고 싶은 2 순위 나라들 역시,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순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한편, 학생들이 이들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면,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월드컵 결승전이 일어난 곳, 풍차와 튜올립 등을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응답은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에 바탕을 둔 판단이 아니라, 음식을 제외하면 모두가 장소의 상징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상징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mental image)가 어떤 나라에 대한 호오(好惡)를 판단하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상징물에 대한 개인의 형상적 이미지(topological image)가 상징물 자체의 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장소가 포함된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유의 여신

상과 에펠탑을 동경하는 학생은 자신이 동경하는 나라도 미국과 프랑스가 된다. 이는 우리가 경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국사나 석굴암을 통해 경주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상징에 대한 동경은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전체적 동경으로 전이되고, 이는 동경의 나라가 문화적 선진국이라 믿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장소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로 인해 그 나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호오의 판단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일본이다. 이들 두 나라는 각 나라에 대한 학생 개인의 호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 애(愛)와 나라적 증(憎)이 동시에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지리 학습 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들을 보면 일본, 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 미국 등이 최상위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기 싫은 나라에 대한 응답 역시 이들 나라들의 순서가 다소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싫어하는 학생은 일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싫어하는 나라 1, 2순위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포함된 나라들을 모두 합치면 그 수는 일본을 싫어하는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

학생들이 특정 나라를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는 정서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과 관련된 1차적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정서적 이유의 예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일제 침략과 이에 따른 탄압, 그리고 동계 올림픽 때 미국인 오노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빼앗아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점이다.

반면, 생활과 관련된 1차적 조건의 열악함은 주로 아프리카, 혹은 아프카니스탄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이 아프리카와 아프카니스탄을 싫어하는 이유는, '못산다', '덥다', '질병이 많다', '먹을 것이 없다', '살기 힘들다' 등 대부분이 삶의 1차적 조건과

표 4.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N=86(중복 응답 허용)

순위	나라 이름	가고 싶은 곳	이유
1	미국(26)	뉴욕(17), 워싱턴(2), 하와이(2), 디즈니월드(2), 쌍둥이 빌딩(2), LA	자유의 여신상 볼(8), 여름 휴가(2), 뉴욕의 생활이 궁금하여, 가장 큰 나라의 수도,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싶어, 불거리가 많다. 높은 빌딩이 많아, 선진국 도시를 보고싶어, 선진국 문화 학습, 유명해서, 테러가 일어난 곳을 보고싶어, 우리 나라 사람이 많아서, 아름다워서
	프랑스(21)	파리(20), 잔다르크의 고향	에펠탑(11), 빵을 먹고 싶어, 예쁜 물건들이 많아서, 잔다르크에 대해 알고 싶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많아, 경치가 좋아서, 예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중국(15)	베이징(3), 홍콩(3) 북경, 상하이(3)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3), 만리장성 구경(2), 문화유적 구경(2), 신기한 것이 많아, 예쁜 옷이 많아, 전통 무술 학습, 경치 구경, 우리 나라와 가까워서, 생활 모습이 궁금해서, 우리의 유물이 많아서,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어서, 중국의 수도
	일본(9)	요코하마(4), 도쿄(2), 삿포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곳 보기 위해(4), 만화가 발달해서, 1년에 한번 눈썹제가 있어, 아름다워서, 놀기 좋아서
	이탈리아(2)	베네치아, 로마	물의 도시, 사계의 작곡가 비발디의 고향, 구경할 곳이 많아
	이집트(2)		피라미드를 보고싶어(2)
	북한(2)	평양	금강산, 문화유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호주(2)		회귀동물이 많아 구경하려고, 캥거루가 보고 싶어서
	터키	수도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
	폴란드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2	미국(16)	워싱턴(5), 하와이, 콜로라도주, 뉴욕(6), LA, 디즈니랜드	자유여신상(3), 디즈니랜드(2), 미국의 수도(2), 미국 문화 체험, 맛있는 것이 많아, 야자나무를 보고 싶어, 그랜드캐년, 워싱턴의 문화 경험, 웅장한 건물 구경, 아름다운 곳, 공부하려고,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 알고 싶어서
	네덜란드(8)	히딩크가 사는 곳(3)	풍차와 플립(4), 히딩크의 열기를 느끼고 싶어(3), 사는 모습을 보고싶어
	일본(6)	도쿄, 요코하마(4)	월드컵 결승이 열린 도시(3), 일본 신세대를 알고 싶어서, 우리 주위의 나라여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프랑스(5)	파리(4)	에펠탑(5), 패션쇼
	이탈리아(4)	로마, 피사의 사탑, 콜로세움	피자 원조를 맛보고 싶어, 진짜 기울어진지 보고 싶어, 장화모양의 이탈리아 국토 모습 확인, 피사의 사탑
	중국(4)	베이징(3), 상하이	중국의 고유 옷과 음식을 알고싶어, 가까운 나라이어서, 문화재가 많아서, 많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이집트(3)		피라미드 구조와 특징을 알고 싶어(2), 미이라를 보고 싶어
	아프카니스탄(2)		전쟁 구경하려고, 얼마나 못살고 불쌍한지 도와주기 위해서
	호주	전체	여러 야생 동식물 구경
	영국	런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던 집 구경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보고 싶어
	터키	이스탄불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서
	포르투갈	리스본	공작이 살았던 집 구경
	브라질	브라질리아	삼바 축구를 보기 위해
	북한		백두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보고 싶어서	

표 5. 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

N=86(중복 응답 허용)

순위	나라 이름	이유
1	일본(26)	일제 식민지 때 우리 나라를 많이 괴롭힘(23), 명성황후 시해, 화산이 폭발할까 봐, 지진 때문에
	아프리카(14)	너무 덥다(7), 더럽고(5), 야생 동물이 많아 위험해서(2),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문화재가 별로 없어, 흑인이 많고, 환경이 좋지않다, 후진국이어서
	아프카니스탄(12)	전쟁 중(7), 더럽고 못살아서(2), 테러가 일어난 곳이어서(2), 전염병
	미국(11)	숫트랙(11)
	북한(7)	서해교전(2), 6.25전쟁,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집트(6)	사막이라서 더울 것 같아(4), 화장실을 돈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독일(2)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를 이겨서(2)
	방글라데시	못사는 나라
	이탈리아	월드컵때문
	가봉	먹을 것이 없어서
	세네갈	멀어서
	중국	탈북자를 잡아가서
2	미국(8)	쇼트랙(4), 테러당할까 봐, 우리 나라를 깔봐서, 총 때문에 무서워서
	아프리카(7)	더럽고 질병이 많아(3), 못살아서(2), 얼굴이 이상하고 식인종이 많아(2), 더워서
	일본(7)	옛날부터 우리 나라를 괴롭혀(4), 지진때문에(3)
	아프카니스탄(7)	전쟁중이라서(7)
	중국(3)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남, 인구가 너무 많아서
	파키스탄(3)	테러의 나라, 아프카니스탄의 속국이어서, 전쟁 때문에
	인도(2)	못 살아서, 더럽고, 포크 숟가락이 없어서
	이집트(2)	모래가 많이 있어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소말리아(2)	덥고, 동물이 많다. 전염병이 많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북극(2)	추워서(2)
	이탈리아(2)	월드컵 때문(2)
	사우디아라비아	문명이 뒤떨어진 것 같아
	터키	음식이 달라
	아르헨티나	가난해서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를 깔봐서
	포르투갈	축구에서 반칙을 많이 해서
	중국	산밖에 없어
	세네갈	사막이 많고 더울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	전쟁 중이어서
	에디오피아	매우 불안정한 나라, 범죄 단체가 많다
북한	우리 나라를 공격함	

관련되어 있다. 이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가고 싶은 나라들을 표현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사 표현이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하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아프리카는 더럽고, 질병이 가득하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 라는 인식에

고착화시키고, 고착화된 인식은 초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아프리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 문화가 그들의 자연적·사회적 맥락에 따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정상적인 문명 세계의 타자로 낙인찍

는 일이다. 만약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담론이 일상화된다면, 암암리에 아프리카에 대해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우월성을 무조건적으로 갖게 되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버림받은, 혹은 본질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비매력적 인식과 편견에 가득한 폄하의 인식은 비단 아프리카만이 아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원이 무엇이나에 따라 판단의 정오(正誤)를 수정하고,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판단을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으로 전환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라별 호오의 구성 맥락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각 나라에 대해 정보를 얻는 절대적 정보원은 TV이다.⁵⁾ 특히 KBS 2TV의 '도전 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들이 아프리카를 인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 각 나라의 오지(奧地)를 찾아가서 그 곳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세계의 다양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이해, 타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 그리고 자연적인 삶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이라는 기획 의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의도의 프로그램도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초등학교들에게는 오히려 타문화를 오해하는 정보원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초등학교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아프리카를 비교, 판단한다. 더욱이 TV에 방영되는 지역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어서, 프로그램 내용은 생활의 원시성과 이로 인한 비위생성, 문화의 낙후성 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내용적 특성으로 인해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교들은 아프리카 전체가 모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또한 암암리에 아프리카의 나라와 인종, 문화를 알아 보거나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는 '흑인이 많아서'라는 인종적 문제, '식인종이 있어'라는 문화적 비하 의식을 갖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표 5 참조). 결국 기획 의도와 달리 '도전 지구 탐험대'는 적어도 초등학교들에게는 아프리카를 문명인이 살기 힘든 원시의 땅으로 오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표 6. 아프리카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된 정보원⁶⁾

순서	정보원	수(명)
1	KBS 2TV 도전 지구 탐험대	35
2	TV 뉴스	8
3	서적	4
4	MBC TV 세계의 오지	3
5	신문	1
6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
7	기아 체험 24시간	1

전술한 것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TV 뉴스와 책도 비슷하다. TV 뉴스나 책에는 아프리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물, 흑인, 종족간의 유혈사태, 에이즈와 같은 질병, 비위생성으로 가득 찬 생활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 역시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인식의 또 다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⁷⁾.

한편으로는 이미 획득된 정보(KBS 2TV 도전 지구 탐험대)가 후속 정보마저 왜곡시키거나, 후속 정보가 선행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유추는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26.5%가 아프리카의 나라를 싫어한다고 나타나는데 비해(표 5 참조), 아프리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전체 학생의 61.6%가 아프리카를 싫어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이는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경기가 아프리카에 대한 긍정적 이해의 정보원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유럽은 아프리카와 달리 정보원이 다양하고, 각 정보원에 대한 응답 비율도 아프리카에 비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KBS 2TV 도전 지구 탐험대가 아프리카 정보원의 66%

를 차지하는데 비해, 유럽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37.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달리 월드컵 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책, 뉴스, 다른 TV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정보원이 아프리카와 달리 유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표 7. 유럽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정보원

순서	정보원	수(명)
1	KBS 2TV 도전 지구 탐험대	19
2	책	9
3	KBS 2TV 풍물 기행 세계를 가다	8
4	TV 뉴스	6
5	월드컵 경기	5
6	MBC TV 세계의 오지	1
7	선생님 말씀	1
8	컴퓨터	1
9	영화	1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나 선진국 문화와 극명히 대비되는 나라들의 문화를 접할 경우, 대부분 자신들 삶의 맥락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후속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지 특성

전장에서 나라에 대한 학생 개인의 호오의 감정이라는 사적 판단을 살펴본다면,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즉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초등 학생들이 인지적 맥락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8과 9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사이가 가장 좋은 나라 1, 2 순위를 종합하면, 조사 학생의 50%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터키를 1 순위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와 사이가 나쁜 나라로는 학생들의 41.4%가 일본을 선정하여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서는 북한, 미국, 이

탈리아 등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표 8,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정서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즉 터키를 압도적 1위로 선정한 이유의 대부분은, 터키가 6. 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형제의 나라라는 점이다. 2위를 한 미국 역시 '6. 25 때 우리를 도와준 것과 현재 우리나라를 지켜 주고 있어서' 라는 이유가 전체 이유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인 네덜란드는 히딩크 감독의 영향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싫어하는 나라들의 이유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 서해 교전과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괴롭힌 북한, 2001년 동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인 김동성의 금메달을 빼앗아 간 오노의 미국 등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괴롭힌 이탈리아가 4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응답으로 볼 때, 초등 학생들이 판단하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 관계라든지, 세계화라는 인식의 틀이 토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아니면 '우리를 괴롭혔는가?' 라는 1차적인 정서적 판단이 주요 토대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정서적 문제가 나라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요인이 되다보니,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양쪽 모두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장에서 살펴본 개인과 나라간의 호오의 주관적 판단을 좌우하는 요인이 문화와 관련된 장소의 상징성과 1차적 생활 조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면,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서, '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호오의 감정을 갖는 나라가 초등학생들처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등을 선정할

표 8. 우리 나라와 사이가 좋은 나라

N=86(중복 응답 허용)

순위	좋아하는 나라	이 유
1	터키(55)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서(52),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를 응원해서(2), 우리의 친구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13)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주어서(5), 우리 나라를 지켜주어서(4),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라서, 살기 좋고 국방이 튼튼해서, 좋은게 많아 서, 힘이 세고 좋은 기술이 많아
	일본(5)	월드컵 공동 개최(4), 월드컵때 우리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네덜란드(3)	히딩크 감독이 있어(3)
	중국	우리 나라와 친하게 지내기 때문
	싱가폴	우리 나라 최고의 가수들이 싱가포르에서 상을 받았다
	호주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폴란드	축구 경기에서 미국을 이겼기 때문에
	북한	우리와 한민족이기 때문에
2	네덜란드(9)	히딩크가 있고 우리 나라를 응원해서(5), 히딩크의 나라여서(3), 우리 나라 축구를 발전시켜 주어서
	중국(8)	옛부터 친해서(3),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를 도와주어서(2), 신기한 것이 많아서, 만 리장성과 중국 요리를 먹기 위해, 우리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어
	터키(7)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줘서(6), 월드컵에서 3,4위전을 했다
	미국(5)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주어서(3), 우리 나라안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줘서, 우리와 경제교류가 많아서
	폴란드(4)	월드컵 첫 승을 주어서(2), 우리와 축구경기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때 미국을 이겨 주어서
	일본(2)	월드컵 공동개최(2)
	스페인(2)	월드컵때 최고로 매너가 좋은 나라여서, 우리와 축구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2)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이탈리아	우리와 축구 경기를 했기 때문에
	독일	우리와 축구 경기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를 잘해서
	아프카니스탄	테러 때문에 우리 나라에 인기를 끌어서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외교적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성인들과 달리 '보고싶다', '먹고싶다', '도와주었다', '괴롭혔다'와 같은 단순한 정서적 농도로 나라간의 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교육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즉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생들이 나라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와 관련된 수업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정서적인 관점에서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칫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거나, 나라간에 작용하는 여러 관계, 특히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편 정서적인 판단이란 또 다른 긍정적인 정서가 제공될 경우, 호오의 판단이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즉 나라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 특정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은, 세계 각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세계가 작동하는 틀에 대한 오개념이나, 나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조사 당시 대

표 9. 우리 나라와 사이가 나쁜 나라

N=86(중복 응답 허용)

순위	나라 이름	이 유
1	일본(38)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38)
	북한(23)	서해교전과 같이 전쟁을 자주 일으켜서(18), 우리 나라와 갈라져 있어(2), 도와주어도 전쟁할 궁리를 하기 때문에(2)
	미국(16)	쇼트랙 경기때문(15), 한국에서 미국 마음대로 하니까
	이탈리아	자기 팀이 졌다고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프랑스	우리 나라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
	독일	우리 나라에게 축구를 이겨서
2	일본(8)	우리 나라를 지배해서(5), 우리 조상을 괴롭힌 나라여서(3)
	이탈리아(6)	월드컵때 좋지 않은 경기를 하여서(5), 우리 나라를 욕해서
	미국(6)	쇼트랙 경기(3), 우리를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쇼트랙 경기 사건으로 나빠짐,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만 대가를 바라고 우리 나라를 앞잡아 본다
	북한(5)	자꾸 쳐들어와서(2), 서해교전(2), 우리 나라와 갈라져 있어서
	중국(3)	많이 싸워서(2),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병자호란)을 주어서
	아프카니스탄(2)	미국과 전쟁중이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서, 싸움을 많이 해서
	독일	우리 나라를 이겨서

구의 초등학생 85명 중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로 터키를 선정한 학생이 1명도 없었는데 비해(김재일, 1997),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86명 중 55명이 터키를 선정한 두 조사의 결과의 차이에서 잘 알 수 있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나라간의 관계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정보원은 동계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도전 지구 탐험대와 같은 TV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³⁾.

5. 대구시의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지 특성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미 상술한 바 있다. 특히 지방이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보존하고 가꿀 때, 세계가 다가오는 새로운 추세(문화 체험)로 볼 때, 대구와 세계 각 나라의 관계 분석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흐름에 순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 수가 이전 문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 문항들에서는 문항에 따라 전체 조사자

의 1~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비해, 대구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조사자의 76.7%인 66명만이 응답을 하였다. 특히 대구와의 관계 2 순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7%만이 응답하여 다른 문항의 50% 전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구라는 지방과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보다 적다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구와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적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이 같은 판단은 대구와 관계 깊은 나라 1, 2 순위로 터키와 미국이 선정된 이유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터키의 경우 대구에서 우리나라와 월드컵 3, 4위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은 대구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다는 것이 선정의 주된 이유이다. 그 외 나라들 역시 대개 월드컵을 매개로 대구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관계 깊은 나라 2 순위에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가 월드컵과 관련하여 대구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알려진 섬유를 매개로 한 대구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는 18명만이 응답하여 월드컵을 매개로 응답한 48명에 비해 반응율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대구와 관계가 깊은 나라

N=86(중복 응답 허용)

순위	나라 이름	이 유
1	터키(22)	대구에서 월드컵 3, 4위전을 해서(18), 6.25때 도와서(4), 가까운 나라여서
	미국(20)	대구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워서(11), 미군을 많이 보내 지켜줘서, 도와줘서(4), 미군 부대가 많다(2). 옷을 수출하여,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서
	중국(11)	섬유와 관련이 깊어(8), 옷을 수출하여, 중국의 섬유 도시와 대구의 섬유 도시가 비슷해서, 중국인이 대구 섬유를 많이 사가서, 중국은 섬유 문화가 발달해 있어, 섬유 전시회를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구 사람과 같은 황인종이어서, 옛날부터 친해서
	일본(4)	섬유공장이 많다(2), 월드컵 공동개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주기 때문
	이탈리아(3)	유명한 섬유 패션도시가 있어, 섬유, 옷 등으로 관계가 깊다(2)
	북한(3)	한민족이라서, 북한과 한 땅이었다. 낙동강에서 북한군을 무찔러서
	네덜란드(2)	히딩크 감독이 대구에서 4위를 만들어서, 히딩크의 고향이어서
	독일	대구에서 월드컵 경기를 해서
	아프카니스탄	석유를 가져와 옷을 만들어서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해서
	세네갈	월드컵 경기
	스페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함
	2	터키(9)
일본(3)		월드컵 공동 개최(2), 일본은 농사가 잘 안되 대구에서 많이 사간다
미국(2)		우리나라와 대구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러서(2)
덴마크		월드컵 경기
16개국(85)		

전술했지만, 대구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대구의 특성을 통해 세계가 다가오도록 하자는 것이고, 혹은 대구의 특성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계를 지향하는 대구의 특성에는 경제적·문화적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 안경, 우산, 또는 대구 주변의 전통 문화 등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월드컵이 아닌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인식이 대구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식의 틀이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응답한 학생이 전체 86명 중 14명이라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대구의 특성을 살린 기회로 야심적으로 진행시킨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식이 초등학생들에게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위해 대구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자주 소개되었다. 이 같은 정보

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측과 달리 섬유와 전혀 관계없는 월드컵이 대구와 관계 있는 나라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와 관련하여서도,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탈리아보다 중국이 오히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홍보 기간이라든지, TV와 같은 매체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 그들의 정서적 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는 것이 인지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초등학생 수준, 특히 정서적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이와 관련된 학습자료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구와 세계와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6. 초등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전제

전장들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흐름을 고려한 초등 세계지리 영역의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제는 세 가지 정도이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인 동심원적 구성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학습내용, 셋째는 학습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동심원적 교육과정의 문제를 보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내용은 6학년 2학기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마을, 고장, 우리나라, 세계라는 교육과정의 동심원적 구성 원리의 결과이다. 이 같은 교육과정 구성 논리 속에는 '적어도 6학년 2학기 정도 되어야 세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물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같은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모든 지역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화와 세계로 향한 지방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인지는 의문스럽다.

사회과, 그 중에서도 지리 영역은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내 삶의 터전과 그 속의 내 삶이 다른 삶의 터전과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국토의 각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있다. 특히,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으로 축소되는 세계(shrinking world)속에 살아가는 지금,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확산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세계 각 나라와 지역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속에 기술되는 세계는 특정 학년에 국한되어 있고, 기술된 내용도 여전히 내 삶과 유리된 세계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 학생 개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각 대륙에 걸쳐 고르게 발달해 있는데 비해, 정작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대구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지하다. 이는 비단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전술했듯이 세계지리를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의 각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과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육성하는데 있다. 특히 지금 세계는 지구적인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세계와 내 삶의 터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향토를 학습하는 3, 4학년에서부터 세계와 향토와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적(時宜的)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의 초점은 향토에 있다. 이렇게 될 때, 대구(지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세계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로 향한 초보적인 인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5학년에서도 우리 국토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주제로 하되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 즉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도 학습의 초점은 우리 국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6학년에 가서는 세계를 중심 주제로 각 나라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는 인식 주체자인 내가 아니라 인식 대상인 그들의 맥락에서 세계 각 나라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의 측면이다.

이는 넓게 보아 교육과정 구성의 범위(scope)와 관련이 있다. 학생과 나라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인지하는 토대는 장소와 관련된 상징물, 생활과 관련된 1차적 조건들,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서적 문제이다. 또한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초등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로워 할 행사 역시 세계를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물론 세계를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이다. 따라서 초등 학교 세계지리 학습과 관련한 학습내용은 이 같은 장소의 상징성, 생활 조건, 우리나라와의 정서적 관련성 등을 소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의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섬유를 매개로 한 관계 설정보다 2002년 월드컵이나 2003년 U 대회, 혹은 뛰어난 장소의 상징물을 통해 대구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

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대구의 섬유산업과 다른 나라의 섬유산업을 관계지우는 것이 초등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지리에서는 위치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위치가 공간의 특성과 그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았듯이 나라 이름은 알지만,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아는 학생과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지리와 관련없는 수업이라면 문제는 적지만, 지리 영역의 수업일 때는 문제이다. 따라서 세계지리는 각 나라들이 세계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륙에 각 나라를 위치시키는 활동과 그 활동 속에 세계를 공간적으로 연계시키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 작동하는 지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 때도 각 나라의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는 우리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지리 학습목적과 관련된 전제이다.

전술했듯이 세계지리 교육은 나와 내 삶의 터전(지방, 국가)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계와 관련된 지식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과 삶의 터전을 더 넓은 안목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는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헤아려 받아들이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세계지리로 보자면 타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혹은 이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하여, 타문화에 대해 편견과 역견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TV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가 초등 학생들이다. 부모들 역시 '도전 지구 탐험대'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적 시사성이 높고, 건전한 프로그램이라 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기를 권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특정 대륙과 나라들을 오해하고,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주 요인이 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적으로 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해된 부분을 재인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잡힌 안목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특히 6학년은 문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각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지리적 환경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7.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인지의 형성 맥락을 토대로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조건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이 세계 각 나라에 대해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TV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주 크다.

2)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호오(好惡)의 판단 근거는 장소의 상징성과 생활과 관련된 일차적 조건, 즉 기후, 음식, 주거지, 위생 상태와 같은 생활 환경이다.

3)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 근거는 주로 정서적 요인이다. 즉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느냐, 괴롭혔느냐'라는 정서적 요인이 판단의 주요 근거이다.

4) 대구시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는 개인 대 나라, 나라 대 나라의 관계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구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의 부족에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 구성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 지방화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의 세계지리 교육 과정을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3, 4 학년 향토 학습에서부터 지방(대구)과

세계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5학년 역시 우리 국토를 주로 다루되, 국토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6학년은 각 나라의 생활 문화를 그 나라의 지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내용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습 내용은 장소의 상징성, 생활 조건, 우리 나라와의 정서적 관련성 등을 소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 나라들의 지리적 특성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대륙별 나라별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계의 공간적 질서와 그 속에서의 지리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4) 막연한 문화적 동경이나, 역견이나 편견에 의해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세계를 시·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균형잡힌 인식의 틀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세계 각 나라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지리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과 삶의 터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지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논의되는 세계화 역시 세계화를 위한 세계의 교육이 아닌, 내 삶의 터전을 위한, 즉 세계적 지방화를 위한 세계 지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구성 원리인 동심원적 구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동심원적 구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동심원적 구성의 골격은 유지하되, 세계화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수정적 동심원적 구성, 즉 3, 4학년에서부터 세계를 학습자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註

- 1) 초등학교에서 세계와 관련된 단원은 6·2학기에 나온다.
- 2)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학생은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지칭한다.
- 3) 1997년 대구시 초등학교 6학년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한 나라 수는 39개국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86명의 조사자가 60개 나라를 응답하여, 5년 전에 비해 21개국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4) 표 1에서 기타는 나라만 응답한 것을 나타낸 것임. 표 1-10에서 각 나라 뒤에 있는 ()의 숫자는 학생들의 응답 회수를 나타낸 것임.
- 5) 월드컵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도전 지구 탐험대라는 TV 프로그램 방영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1997년의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순으로 나타났고, 싫어하는 나라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특히 싫어하는 나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프리카니스탄 전쟁, TV 프로그램, 월드컵 경기 등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표 6과 7의 통계치는 아프리카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과 유럽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임.
- 7) 아프리카에 대한 이 같은 오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6.25사변, 군사 독재, 과격한 데모, IMF,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8) 1997년 초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의 순서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터키, 미국, 네덜란드, 일본 순의 결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다. 특히 1997년 조사에서 터키가 우리 나라와 관계가 깊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비교로 볼 때, 적어도 초등학생들에게, 월드컵 경기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재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文獻

-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32, 1-15.
- 김재일, 1997, 초등학교 학생들의 세계 image에 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졸업논문.
- 박삼욱, 2002, 네트워크 세계의 산업; 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 대한지리학회지 37(2), 111-130.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 지리논의를 위하여, 서울: 명보출판사.
- 이재하, 1997,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지역연구 방법론 모색-세계 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43.
- 이희연, 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 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 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 최재현, 1996, 세계화와 지방화: 그 지리적 의미, 지리교육논집 36, 126-133.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42-247.
- Entrikin, N., 1994, Place and Re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 227-233.
- Johnston, R. J. and Claval, P., eds., 1984,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 International Survey*, Croom Helm, 19-23.
- Mcluhan, M., 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2002년 6월 13일 접수)